POLICY BRIEF 2024

2024. 09. vol.65

2024
정책브리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연 구 진 | **전아람** 전문연구원

※ 이 자료는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www.jthink.kr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 분석과 해결이 시급하다. 청년 여성의 지역 정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조성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의 고유 매력을 살린 지역 브랜딩을 창출·강화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업 지원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특히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Jthink 전북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저출생 위기의 상황에서 고령인구층 증가는 지속되는데 비해, 청년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동부권과 서남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세대 성별 구성은 20대는 남성이 54.2%, 여성이 45.8%이며, 30대의 경우 남성이 52.1%, 여성이 47.9%로 여성의 비중이 전국 대비 적음

○ 전국적으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아의 여성 비율은 46~48% 수준으로 남성보다 적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연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전북 청년 여성의 비중이 특히 낮은 것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인구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의 최소 토대가 되는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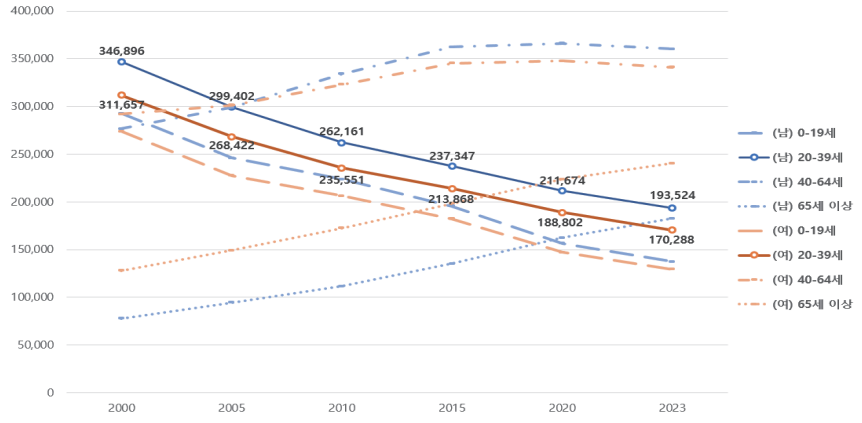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이동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연령대별 인구증감 추이는 0~19세 유·청소년, 20~39세 청년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40~64세의 중장년인구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정체 및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 청년인구 증감 추이는 2000년 대비 2023년의 경우 남성 44.2% 감소, 여성 45.4% 감소로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며,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의 감소폭을 확인 해봐도 남성(-8.6%)보다 여성(-9.8%)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 전북특별자치도의 20~39세 청년인구 성별 비중은 남성인구가 52.1%, 여성인구가 47.9%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약 4.2%p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도내 14개 시군 중 청년인구의 성별 비중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지역은 임실군으로 전체 청년인구 중 남성 청년이 56.3%, 여성 청년이 43.7%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약 12.6%p 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부안군(-11.8%p), 고창군(-11.4%p), 장수군(-10.2%p) 순으로 성별 비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반면 14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전체 청년인구 중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여성과 남성 인구비중의 차이는 -3.8%p임

[표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청년인구 성별 비중(2023)

(단위 : 명, %, %p)

	인구수			비중		
	총인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남성
전 국	12,773,034	6,657,829	6,115,205	52.1	47.9	-4.2
전 북	363,812	193,524	170,288	53.2	46.8	-6.4
전주시	162,057	84,139	77,918	51.9	48.1	-3.8
군산시	52,856	28,679	24,177	54.3	45.7	-8.6
익산시	57,892	31,051	26,841	53.6	46.4	-7.2
정읍시	17,097	9,352	7,745	54.7	45.3	-9.4
남원시	11,944	6,439	5,505	53.9	46.1	-7.8
김제시	13,217	7,213	6,004	54.6	45.4	-9.2
완주군	19,619	10,571	9,048	53.9	46.1	-7.8
진안군	3,018	1,617	1,401	53.6	46.4	-7.2
무주군	2,982	1,638	1,344	54.9	45.1	-9.8
장수군	2,565	1,413	1,152	55.1	44.9	-10.2
임실군	3,379	1,904	1,475	56.3	43.7	-12.6
순창군	3,609	1,930	1,679	53.5	46.5	-7.0
고창군	6,788	3,780	3,008	55.7	44.3	-11.4
부안군	6,789	3,798	2,991	55.9	44.1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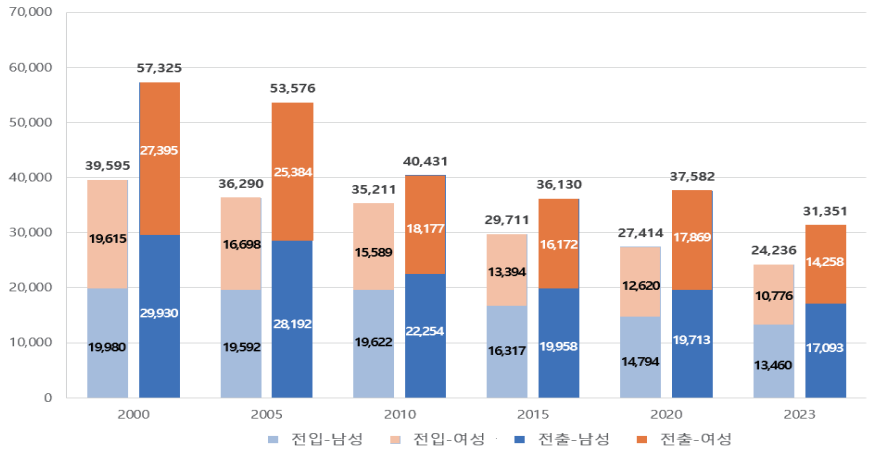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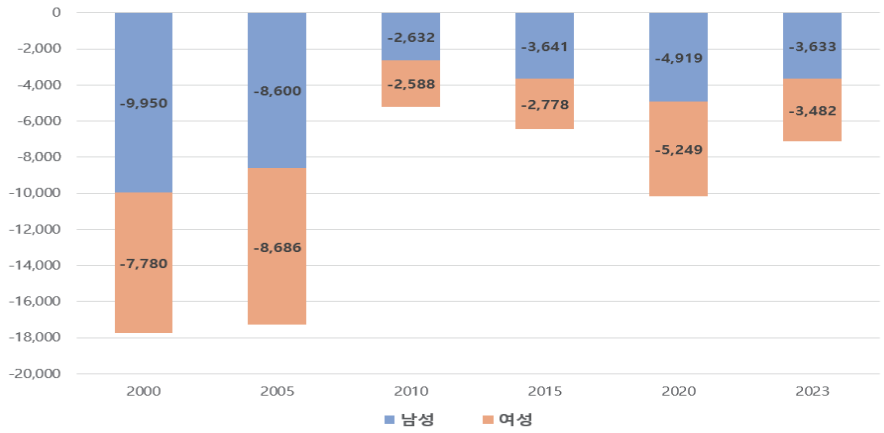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의 20~39세 청년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는 전입 24,236명, 전출 31,351명으로 7,115명이 유출되었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전입 전출 현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는 남성이 3,633명, 여성이 3,482명 유출되었음

[그림 2]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청년인구 전입 전출 추이



[그림 3]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청년인구 순이동 추이



○ 청년인구의 인구 순이동 현황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20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입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0대의 경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로의 인구 유입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전북자치도 청년인구 순이동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20~24세 3,850명 유출, 25~29세 2,546명 유출, 30~34세 658명 유출, 35~39세 61명 유출로 나타나 청년세대의 유출은 특히 대학 졸업 후 입직이 이루어지는 20대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20~24세 인구의 유출이 2,754명으로 전체 청년인구 유출의 과반이 넘는 69.2%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25~29세 인구가 2,013명으로 가장 많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군 입대로 인해 남성의 대학 졸업 및 입직이 여성보다 늦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2] 연령대별 성별 순이동 현황(2023)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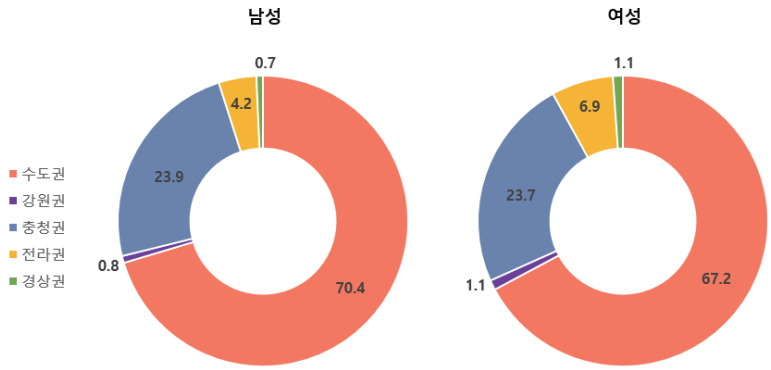
	남성				여성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서울	9,980	9,963	-4,311	-6,590	19,260	7,002	-6,833	-5,755
부산	985	-3,348	-1,020	-425	562	-2,097	-1,158	-301
대구	-1,600	-2,598	-94	453	-1,488	-1,402	62	596
인천	456	1,201	2,165	2,907	822	1,178	2,068	2,294
광주	-729	-1,317	-595	-247	-1,134	-1,186	-761	-267
대전	1,202	-123	-230	-371	326	-232	-247	-171
울산	-1,021	-79	-28	-86	-1,378	-399	-31	-124
세종	-217	229	466	131	-44	534	307	149
경기	1,999	3,326	4,405	3,448	1,145	579	5,772	3,123
강원	-466	-1,280	-224	96	-1,636	-166	71	17
충북	-91	61	237	141	-995	146	369	237
충남	-307	1,089	869	843	-1,436	384	826	629
전북	-1,654	-1,586	-315	-78	-2,196	-960	-343	17
전남	-1,945	-1,197	15	337	-2,485	-610	356	186
경북	-1,447	-1,427	-630	-418	-3,661	-1,214	-330	-452
경남	-4,529	-2,567	-665	-296	-4,881	-1,299	-206	-225
제주	-616	-347	-45	155	-781	-258	78	47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권역별 유출 비중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충청권과 전라권이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순이동자 중 수도권으로 유출 비중이 70.4%에 달하였으며, 충청권은 23.9%, 전라권 4.2%, 강원권 0.8%, 경상권 0.7%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는 수도권으로의 유출 비중이 67.2%로 남성보다 다소 낮았으며, 충청권 23.7%, 전라권 6.9%, 강원권과 경상권이 각각 1.1% 순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수도권보다 전북자치도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권역별 유출 비중(2023)



○ 청년들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전출 사유 비중을 비교해보면, 직업에 의한 전출 비중은 과반인 54.1%인데 반해 직업으로 인한 전입은 38.5%에 불과하여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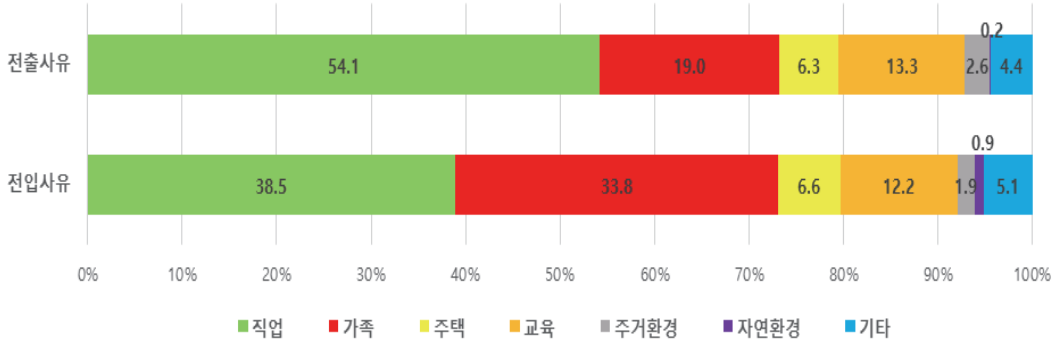
○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1)]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2)]의 전입사유를 확인한 결과 직업 사유가 38.5%로 가장 높았고, 가족 33.8%, 교육 12.2%, 주택 6.6% 순으로 전입사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대보다 교육으로 인한 전입 비중이 높았고, 30대가 20대에 비해 직업과 가족, 주택에 의한 전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입사유 중 직업의 비중이 42.4%로 가장 높았고, 가족 29.5%, 교육 12.2%, 주택 6.9% 순으로 비중이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족의 비중이 39.6%로 가장 높았고, 직업 33.3%, 교육 12.1%, 주택 6.2%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청년 1인가구의 전출사유를 확인한 결과 직업 사유가 54.1%로 과반 이상이었고, 가족 19.%, 교육 13.3%, 주택 6.3% 순으로 전출사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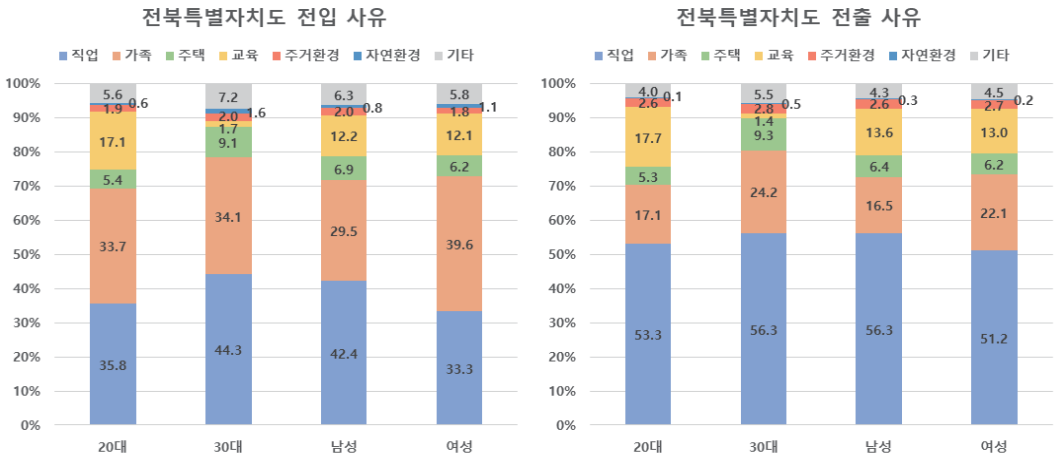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대보다 교육으로 인한 전출 비중이 높았고, 30대가 20대에 비해 직업과 가족, 주택에 의한 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출사유 중 직업의 비중이 56.3%로 가장 높았고, 가족 16.5%, 교육 13.6%, 주택 6.4% 순으로 비중을 보였으며 여성 역시 직업의 비중이 51.2%로 가장 높았고, 가족 22.1%, 교육 13.0%, 주택 6.2%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1인 청년인구 전북특별자치도 전출/전입 사유(2023)



1) 전북특별자치도 내 이동은 제외함
2)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전입사유는 가구별로 이동할 경우 가구대표자가 선택한 이동사유가 전체 가구원의 이동사유가 됨으로 청년인구의 실질적인 전입/전출 사유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년세대의 실질적인 전입/전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 1인가구의 전입/전출 사유에 대해 확인함

[그림 6] 1인 청년인구 인구특성별 전북특별자치도 전출/전입 사유(2023)



3. 전북 청년 여성 유출입 경험 분석

심층면접 개요

○ 청년 여성의 유출과 지속 정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 여성들의 정책 및 사업 방향 발굴을 목적으로 전북 출신 20-30대 청년 여성 FGI 및 면접조사를 시행함

○ 청년 이동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북에서 출생하여 전북으로 다시 되돌아온 경우, 전북 지속 거주의 경우, 타지역 출신으로 전북에 정착한 경우, 전북 출신으로 타지역에 정착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농촌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의 사례로 포함하여, 이동의 경험과 이동 결심 사유, 지역 간의 장단점 비교, 정주 이유 등을 중심으로 19명의 청년 여성 심층면접을 진행함

○ 면접 질문은 거주지 변동 원인 관련 질문과 지역이동의 경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지역 공동체, 지역 자긍심 등으로 구성함

[표 3] 청년 여성인구 관련 면접 질문 분야

심층면접 질문 분야	
• 출생 및 학업 가족관련 • 지역이동의 경험 • 취업경험 및 현재 직업 • 정주여건	• 교육 • 복지 및 문화 • 지역 공동체 및 활동 • 자신의 삶과 지역

자료: 저자작성

지역 이동의 경험

○ 청년들은 대학 진학을 계기로 전북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며,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은 지역 이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

○ 대학 진학 후에도 지역 내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학위 과정 중의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을 알 기회가 없을 때,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를 지역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시험 준비나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청년들이 전북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망이 생기고, 이로 지-산-학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경로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

○ 또한, 일자리와 산업분야의 다양성 부족, 낮은 성장 가능성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전을 높이고, 전북으로의 귀환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전북지역에 일자리를 통해 정착한 경우, 거주 기간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의 삶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처음 예상보다 정주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볼 수 있음

○ 전북에 정착한 이들 중에서는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매력을 발굴할 필요 부각

○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귀농귀촌 청년의 경우, 지역의 농가소득이 안정적이고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타지에서 많은 청년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의 노마드(Nomad) 정서: 청년인구는 평생직장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의 평생 거주를 상상하지 않는 특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1년, 3년, 5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살며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

일자리·창업 경험

○ 전북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경쟁력 저하가 청년들의 정착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실제로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전북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발생

○ 지역에서 취업한 경우에도, 일의 경험으로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없고, 일자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또한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지역이동을 결심하는 원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도 볼 수 있었음

○ 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정책 집중 대신에 청년들의 창업이나 창직(創職)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군의 정책 설계가 변화될 필요가 있고, 일자리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의 존재 이상의 유인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

○ 일자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일자리의 보장만으로 청년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전국 어디서나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전북지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더한 청년을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이 추가적으로 필요

○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의 분야 확대와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결망 구축 요청

정주여건과 청년공동체

○ 전북지역의 정주여건은 교통, 의료, 교육, 소비 및 문화 영역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대비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주거 부문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비 저렴하게 질 좋은 주거 공간 마련이 가능

○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통, 소비, 문화생활 등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요청

○ 의료 관련해서는 인구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소아과 등 병원시설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의 상담을 위한 병원의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

○ 소비나 문화 영역에 있어 대도시의 경우와는 달리 문화 및 소비 인프라가 적어 공연을 위해 서울로 가거나 쇼핑을 위해 인근 대도시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있었고, 최근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팝업스토어 등이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경우가 없어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전북지역의 전통문화 관련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연이나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청년공동체 활동은 지역으로 청년들을 이끌고, 직장을 바꾸는 시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면서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인 관계망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함

지역정체성 및 청년정책 방향

○ 전북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브랜딩 전략이 필요함

○ 전북지역은 전주를 비롯하여 사회적 비극을 기억하고, 환경파괴에 민감한 감수성을 공유하며, 이러한 정서가 존중받아 개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비에 있어 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책제안과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다양성과 균형이 요청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전북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나 사업만이 아닌 지역에 사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유인 지역 정체성이 구현되어야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청년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간주되는 베를린, 킨포크의 도시 포틀랜드와 같이 다양성이 존중받고,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의 실천이 쉬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필요

○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 청년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만 이루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에 지원사업 기한 동안만 다니면서 실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오히려 지역 내의 일자리의 질을 약화시키기도 함

○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청년 지원사업에 있어서 분야별 사업 진행이 아닌 잠자리, 놀자리,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들과의 활동 협업에서 그들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시너지 확대 노력 필요

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 방안

○ 청년 여성들이 전북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기 위한 비전은 “전북, 청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으로, 목표는 “청년 여성의 꿈이 피어나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회 제공”으로 설정함

○ **(일자리 분야)** 일자리의 경우는 물론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중요하지만, 실제 일자리의 확대가 즉각적인 청년 여성인구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에 더하여 다른 가치 실현이나, 직장 내에서의 관계와 소통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전북의 특성화 전략으로 • 창업·창직 지원프로그램 확대, • 직장문화 개선 사업, • 청년 여성 워케이션 사업을 제안

○ **(정주여건 분야)**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주거지원 사업이나 전북지역 내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전북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즐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 도심 내 공유자전거 사업과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 아동대상 소아과 확대 사업을 제안함

○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으로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이후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다시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확대를 제안함. 이를 통해 대학시절동안 지역 내 기업이나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정착을 지원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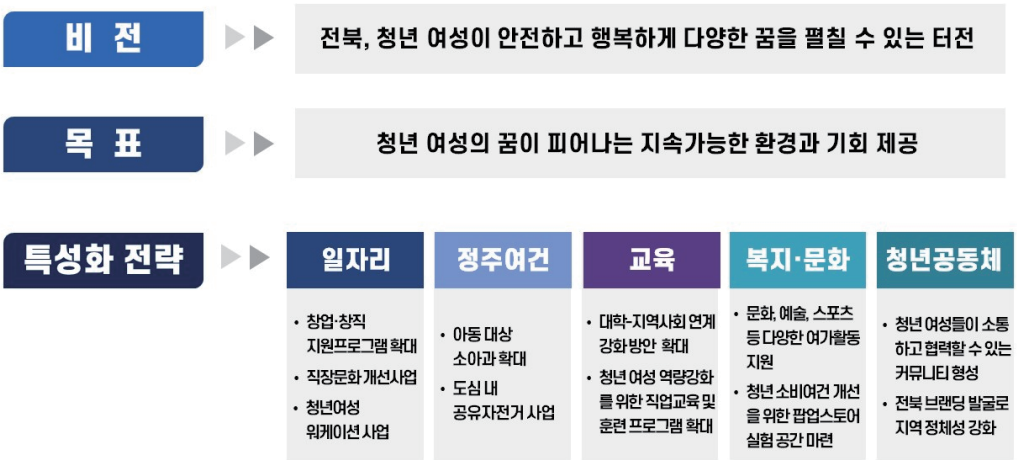
○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취업 상태에서 혹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선택지가 적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제안함

○ **(복지·문화 분야)**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스포츠·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청되어 •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제안하고, 청년 여성들이 지역 내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소비 영역 확대를 위해 •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을 제안함

○ **(청년공동체 분야)** 청년공동체 분야에서는 전주의 지향집 사례를 통해 보여주듯이 공동체 커뮤니티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역 내 창업과 연결하고, 주변 거리의 상점 풍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 청년 여성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을 제안함

○ 또한 이런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전북 이미지 발굴이 요청되어, • 전북 브랜딩 발굴로 지역 정체성 강화 전략을 제안함

[그림 7] 전북 청년 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를 위한 비전, 목표 및 특성화 전략



Jthink
Jeonbuk State Institute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